

“어느 분이 석가모니불이에요?”

경주 불국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은 불국토를 현실에 정영한 성지(聖地)다.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선 일주문을 지나며 사람들은 고단한 마음을 쉬고 중도(中道)의 마음을 갖는다. 수미산 중턱의 사천왕 공경을 형상화한 천왕문, 금강문을 거쳐 진리를 상징하는 불이문, 해탈문과 범종루를 지나면 부처님과 보살을 모신 전각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전각에 모셔진 부처님 보살님이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전각마다 붙여진 이름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불상의 손모양(手印)을 보고 알 수 있다. 보살은 연꽃·정병(淨瓶)·법륜(法輪)·구슬 등 손에 잡고 있는 물건(持物) 등으로 구분된다. 수인은 손의 형상으로서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계인(契印)은 지물을 들어 그 상징성을 표현한다. 수인과 계인은 불·보살의 모습으로 근본서원을 나타낸다. 전각마다 봉안한 불보살을 알아보자.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각각의 불보살님들 어떻게 다를까?

◇석가모니불의 손 모양은 마군을 향 복반된 모습을 나타내는 항마촉지인, 선정에 들었을 때 취한 선정인(법계정인), 전법륜인(갈상인) 등을 하고 있다. 협시보살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다. 석가모니불 왼쪽의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智慧)를 상징한다. 사자좌에 앉아 오른손에 지혜의 칼을 쥐거나 왼손으로 푸른 연꽃을 들고 있다. 오른쪽의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행원을 상징한다. 연꽃을 들고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나타난다.

◇비로자나불은 오른손으로 세운 왼손의 검지를 감싸 진지권을 하고 있다. 오른손은 불계(佛界), 왼손은 중생계(衆生界)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여러석음과 깨달음이 본래 하나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아미타불은 아미타정인(九品印)을 하고 있다. 좌선 자세에서 양손의 검지를 꼬부려 손가락을 끝을 붙이고 검지손가락 등이 서로 맞닿은 상품상생인을 비롯해 아홉가지 모양이 있다.

협시보살로 왼쪽의 관음보살은 정수리에 아미타불의 화현을 모시고 있다. 연꽃, 갈로수병 등을 들고 있다. 아미타불 오른쪽의 세지보살은 왼손에 백련화를 들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있다.

◇약사불은 왼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고 약그릇(약병) 혹은 구슬을 받들고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손에 육환장을 들고 있다. 협시인 도명존자 및 무독귀왕 외에 염라대왕을 위시한 지옥의 시왕상(十王像)을 봉안한다. 시왕의 각 명호는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계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태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문대왕 등이다.

◇사천왕은 △동방 지극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이 있다. 동승신주를 관장하는 지극천왕은 건달바의 왕으로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을 하며, 남침부주의 증장천왕은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 서우화주의 광목천왕은 한손에는 용을, 다른 한손에는 여의주를 잡고 있다. 북구로주를 관장하는 다문천왕은 오른손에 탑을, 왼손에는 긴 창을 잡고 있다.



#그 외 부처님 손모양은?

◇여원인과 시무외인 여원인은 일체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수인으로, 한쪽 손의 다섯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향하여 아래쪽으로 드리우는 모습이다. 만일 손을 안쪽으로 향하여 드리우면 축지인이 된다. 다른 한 손의 시무외인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수인으로 팔을 들고 다섯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서산 마에삼존불 등

◇합장인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인도인의 인사법과 유사한데, 보통은 두 손바닥과 열 손가락을 합하는 모양이다.

◇연화합장인 연화합장인은 두 손의 열 손가락을 세워서 손가락과 손바닥을 함께 합하는 합장으로, 그 모양이 연꽃의 봉오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음을 연꽃과 같이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법식을 행할 때 처음에는 이러한 결인을 한다.



#어느 전각에 어느 부처님이?

◇대웅전 대웅은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로 큰 영웅이란 뜻이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고 협시로 문수, 보현보살을 봉안한다. 대웅보전이라 할 때는 주불로 석가모니불,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신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아미타전 극락전, 무량수전, 수광전이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로 불리는 서방 극락정토의 부처님이다. 아미타전이라 했을 때는 아미타여래가 주불이며, 무량수전이라 했을 때는 무량수불이 주불이다. 주불 아미타여래의 협시로는 관음, 대세지보살을 봉안한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강진 무위사 극락전 등

◇대적광전 불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화엄전, 비로전, 적광전이라고도 한다.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좌우에 화신불인 석가모니불과 보신불인 아미타여래를 봉안한다.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화신불과 보신불 좌우로 문수 보현 관음 세지보살을 협시로 모시기도 한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불국사 비로전 등

◇약사전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은 유리전, 유리보전, 보광전, 약광전 등이라고도 한다. 약사불을 주불로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봉안한다. 강화 전등사 약사전, 순천 송광사 약사전 등

◇관음전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하며 원통전이라고도 한다. 협시로는 남승동자, 해상용왕이 있으나 후불탱화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양양 낙산사 원통보전, 구례 화엄사 원통전 등

◇미륵전, 나한전, 지장전 등 미륵전은 미륵불을 주불로 모신 전각으로 융화전이라고도 한다. 좌우 법화림보살, 대길상보살을 봉안한다. 김제 금산사 미륵전 등 나한전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좌우 주위에 16나한상을 봉안한다. 16나한을 모신 전각을 응진전, 500나한을 모신 곳을 나한전이라 한다. 청도 운문사 오백나한전 등



알쏭달쏭 불교문화가 한 손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700여 개의 표제어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문,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한국불교문화사전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편집 (02) 926-8361, 영업 (02) 3672-7181 북타북 www.buddhabook.co.kr

본마음 참나의 불성 자리를 찾아서

월호 스님의 십우도 풀이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국판/컬러/208쪽/9,000원

참선의 단계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이한 참선과 행불수행의 길잡이!

나는 지금 수행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등, 마음공부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수행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십우도는 참선수행의 드넓은 바다에서 현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수행법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풀이



수행문답

현장에서 수행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기본 개념, 수행의 방식, 각 수행법의 요체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법보신사 엮음/신국판/424쪽/17,000원